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

9월 1일은 방재의 날

9月1日は防災の日です。

9월 1일은 ‘방재의 날’입니다.

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을 계기로, 재해에 대비하고 방재에 대해 생각하는 날로 정해졌습니다.

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. 이번 기회에 재해에 대비하고,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인해 봅시다.

■ 오사카 880만 명 훈련(오사카 하쿠하카치쥬만닌쿤렌, 大阪880万人訓練)

난카이트러후(trough)거대지진(난카이토라후쿄다이치신, 南海トラフ巨大地震)의 발생을 가정하여 실시하는 방재 훈련입니다. 오사카후 내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등으로 대규모 쓰나미 경보를 알리는 훈련용 지역 긴급 문자 및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.

일시: 9월 1일(화요일) 오전 10시경

■ 재해 발생 시 도보 귀가 체험 훈련(사이가이지키타쿠콘난샤타이켄쿤렌, 災害時帰宅困難者体験訓練)

재해가 발생하면 전철과 버스의 운행중단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, 본인이 걸어서 귀가할 수 있는 거리와 소요 시간을 확인합니다.

※완주한 분에게는 특전이있습니다.(수량한정)

일시: 9월 4일(금요일) 오후 6시~8시 30분

장소: 신미도스지(新御堂筋)~오사카추오칸죠센(大阪中央環状線)

대상: 해당 지역에 거주, 근무 또는 통학하는 사람

신청 기간: 8월 17일(월)~9월 3일(목)

실행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바랍니다.

■ 문의

위기관리실(Kikikanrishichu, 危機管理室) 06-6384-1753

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